

현대 전쟁에서 드론과 AI가 경제와 전략에 미치는 핵심 흐름과 수익화 구조

현대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기 자체의 성능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정보와 기술의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 비용과 전략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저가의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해 고가의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전술은 전쟁의 경제성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4천만 원대의 드론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60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는 상황은 전쟁 비용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드론 자체는 로우테크지만 최첨단 IoT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접목해 자율 비행과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전장의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 뿐 아니라 기술력과 운영 능력이 전쟁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걸프전이 전자전의 시대를 열었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AI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AI가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은 전통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량의 저가 무기를 활용해 상대의 고가 무기를 소모시키는 전략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AI가 전쟁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의 주된 피해는 155mm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은 전통적인 무기의 영향력이 여전한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공 방어 체계는 100% 요격이 불가능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전쟁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무기가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의 경우, 저공 비행과 작은 크기로 인해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심지어 목재나 종이로 제작된 기체도 사용되면서 탐지와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판세는 기술력뿐 아니라 창의적 전술과 운영 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무기 체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윤리적 문제와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기계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직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없으며,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드론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드론을 장난감 수준으로 여겼지만, 현재는 50만 대 드론 전사 양상 추진 등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1970~80년대부터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결합해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전략적 운용 능력,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대규모 충돌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군사비 지출과 기술 개발,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경제의 향방을 진단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도전과 기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핵심 관점	키워드	해석 포인트
Ray Dalio (경제 사이클)	경제는 장기 사이클의 변곡점에 있으며,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경기 변동을 가속화한다.	경제 사이클, 지정학 리스크, 경기 변동	전쟁과 기술 변화가 경제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조한다.
Paul Krugman (거시경제)	정부 지출과 정책 대응이 경기 회복의 핵심이며, 전쟁 비용이 단기 경제에 부담을 준다.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전쟁 비용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 전망을 분석한다.
Milton Friedman (시장 자유)	시장 자율성과 효율적 자원 배분이 경제 회복의 열쇠이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자유, 자원 배분, 정부 개입 제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제 조정과 정부 개입의 부작용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 세 전문가의 관점은 현재 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Ray Dalio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이 경제 사이클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중시하며, 경기 변동성 확대를 경고합니다. 반면 Paul Krugman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전쟁 비용이 단기적으로 경제

에 부담을 주지만 정책 대응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Milton Friedman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이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경제의 향방을 단일한 관점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적이며, 정책 대응과 시장 반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경기 흐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시장 신호를 면밀히 관찰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발전과 군사비 지출이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바라보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찰은 앞으로의 경제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려면 아래 PDF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QUILA INSIGHT

본 콘텐츠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 2026 Aquila Insight. All rights reserved.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AQUILA INSIGHT